

### 제3강 易의 세계

(1교시)

#### ◆易의 의미

※학습목표: 동북아 철학자들 모두에게 공통의 기초를 제공한 담론 중의 하나인 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의 차이

-서양 존재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점을 찾으려 한다. 이것은 아르키메데스의 점으로 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동양철학에서 점을 찾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동양철학은 계속 이어지는 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道가 동양철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道와 氣 그리고 易의 관계

-기는 생명까지 포함한 물질 자체이다. 그리고 '기'가 움직여가는 방식이 道이다. 이때 기는 氣化로만 있게 된다. 그래서 동북아 철학에서 화를 떠난 고정된 실체는 의미가 없게 된다. 여기서 기화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역이다. 그래서 기와 역이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범주가 된다. 그리고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이 道이다.

#### ▲易과 생성의 철학

-역은 동북아 사람들의 기본적인 직관이다. 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세계는 끝없는 변화'라는 사유와 유사하다. 그런데 역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가 끊임없는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본질의 끝없는 변화이다.

-플라톤의 영혼·본질 철학도 세계의 변화를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 철학에 있어서 현상일 뿐이다. 끊임없는 변화를 넘어선 idea·eidos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생성의 철학에서는 끝없는 변화가 세계의 전부다.

#### ▲생성의 두 가지 맥락

-세계를 생성으로 볼 적에 두 가지 맥락이 있다.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는 맥락과 어떤 불연속·매듭·분자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맥락이다. 전자는 완벽한 연속성을 말하는 생성이고, 후자는 매듭을 지어가며 변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런 존재도 의미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도 막연한 흐름을 말하지 않는다. 역에서 중요한 것은 흐름보다 변화이다.

#### ▲易의 발전사와 周易의 구성

-역은 점치는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성립되었다. 점에 대한 표현들이 더 세련되게 변화한 것이다. 세계에는 규칙성이 존재하고, 그 규칙성을 파악하고 인식함으로써 미래를 알 수 있다. 다만 방식의 차이만 있다. 역을 사유한다는 것은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주역은 역경과 역전으로 구성된다. 역경은 괘卦의 이름, 괘의 상들이 적혀 있는 것이다. 이후 사람들이 역경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역전이 뒤에 붙는다. 그

역전을 십익十翼이라 한다.

▲易의 목적

-역은 일차적으로 끊임없이 생성하는 현상세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항구적인 생성이 duer이다. 그러나 그 항구적인 생성에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성을 인식하려는 것이 역의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역은 서구 언어로 transformation, change로 번역하게 된다.

▲易과 change와 movement

-change와 movement는 구분된다. change는 실체적 변화까지 포함한 변화이다. 반면 movement는 어떤 실체가 겪는 변화이다. 그래서 movement를 운동이라 번역한다. 여기서 역은 change이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건들의 변화이다. 그래서 자연과학 맥락에서의 변화와는 다르다.

(2교시)

◆역易과 점복占卜

※학습목표

易과 그리스 자연철학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運·動·變·化의 차이

- 운은 무엇을 돌리는 것이다. 동은 영어의 motion과 비슷한 뉘앙스로, 운동과 더불어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는 상황도 깃들여 있다. 변은 질적·실질적 변화를 가리킨다. 하지만 변은 실체를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의 변화이다. 그에 비해 화는 변보다 근본적 변화를 함축한다.
- 서구의 언어로 개념을 분류한다면 운동은 motion에 가깝고, 변은 movement에 가까우며, 화는 change나 transformation과 가깝다.
- 운·동·변·화는 운동과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 **역은 이때 변화에 가깝다.**

▲易과 占卜

- 역은 점복에서 출발한다.** 역은 도마뱀을 뜻하는 척蜴에서 나왔다. 도마뱀이 색을 변화하는 것에서 역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팔괘八卦는 복희伏羲가 그렸다고 전해진다. 복희는 아랫도리가 뱀이다. 뱀은 파충류이고 이는 도마뱀과 관련된다. 그리고 파충류는 용과 관련하여 비와도 연계된다. 한편 무계층은 파충류를 관장하고 주관하였으며, 파충류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무계층은 비를 주관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를 내린다는 것은 농업 위주의 전통사회에서 절대적 능력이다. 점을 친다는 것은 전통사회의 농업적 구조, 무계급의 능력, 파충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역이 시작하였다.
-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역은 철학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역경이라고 하는 주술적이고 미래 예측적인 행위에다가 어떤 사상들의 내용이 스미게 되는 것이다.

▲易의 철학적 의미

- 역은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다. 농업사회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역은 단순한 상상이나 관례가 아니라 실제로 천지에 준한다. 또한 천지에 준하여 만 들었기 때문에 천지의 도를 통찰할 수 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세계와 볼 수 있는 세계를 모두 알 수 있다. 이것이 역학의 기본 의미이다.

▲易과 그리스 자연철학과의 차이

- 그리스 자연철학은 현상을 어떤 점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현상을 해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탈레스로 시작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arche를 찾으려 노력했다.) 반면 **역학은 그 현상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현상이란 단어 자체가 주역이 되는 것이다.